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꿈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 근로소득 외에도 부가소득으로 부(富)를 쌓고자 하는 욕망이 불러일으킨 새로운 불로소득의 형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벌어요
패시브 인컴의 등장

액티브 인컴에서 패시브 인컴으로

미국 '투자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만한 고연봉자나 자산가가 아니라면 단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든 시대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노동력을 팔아 얻은 월급만으로 부를 창출했다. 하루 기본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고 밤샘 노동과 주6일 근무도 감수했다. 일을 해야 보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을 '액티브 인컴(Active income)'이라고 한다. 액티브 인컴에 의존해 생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직장인이다. 직장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일을 하지 않아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패시브 인컴'이 바로 그것이다. 패시브 인컴이란 노동과 돈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아 자고 노는 시간에도 돈이 저절로 벌리는 새로운 소득방식이다.

최근 들어 월급을 아껴서 열심히 저축한 돈만으로 부를 쌓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패시브 인컴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점차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패시브 인컴에 노동과 시간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이나 다름없다.

투자부터 콘텐츠 판매까지, 패시브 인컴 창출 방법은?

그렇다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2030세대가 매진하는 주요 수익원은

'콘텐츠 판매'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유튜브·블로그 애드센스(광고), 전자책 판매 등이 이와 연관된다. 지난해 네이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 약 3개월간(3~5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신규 개인 판매자 수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의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투자'는 패시브 인컴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여윳돈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한 소액 투자 상품도 많아졌다. 아울러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를 위해 투자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어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5,000원 단위로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어플이 등장했으며, 쉽고 간편한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투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 '주식세끼(하루 세 번 매매)'가 익숙한 표현이 됐을 정도로 최근 투자 열기가 그 무엇보다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30세대의 이 같은 공격 투자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임대'가 있다. 남는 방이나 창고 같은 잉여 공간을 빌려주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최소한으로 투입되고 적잖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2030세대로부터 관심을 얻고 있다.